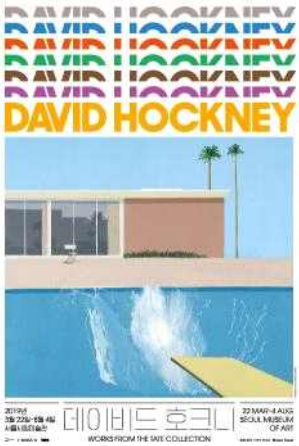
SeMA

Press Release Ver.1

2019. 3. 21.

홍보담당 김채하 학예연구사
Public Relations. Kim Chae Ha
T. 02-2124-8928
E.mail. chaeha@seoul.go.kr
webhard. http://sema.webhard.co.kr/
ID: semapress PW: sema

데이비드 호크니
David Hockney



전시명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기간	2019.3.22.(금) ~ 2019.8.4.(일)		
개막식	2019.3.21.(목) 17시 30분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2, 3층		
주 최	서울시립미술관, 영국 테이트미술관		
주 관	(주)시월		
후 원	영국문화원	**협 찬**	카카오페이

핵심 개요

- 《데이비드 호크니》는 서울시립미술관과 영국 테이트미술관이 공동 기획한 전시로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고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예술가 중 하나인 데이비드 호크니의 아시아 첫 대규모 개인전.

- 현존 작가 중 최고 작품가를 기록한 데이비드 호크니(1937, 영국)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동성애, 인물, 풍경 등을 주제로 다양한 방식의 '그림 그리기'를 시도해 오늘날 "존재 자체가 하나의 장르인 이 시대의 예술가"로 발돋움함.

- 전시는 영국 테이트미술관을 비롯한 총 8개의 해외 기관으로부터 대여한 호크니의 회화, 드로잉, 판화 133점을 일곱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구성함. 특히 호크니의 대표작인 〈더 큰 첨벙〉, 〈클라크 부부와 퍼시〉, 《움직이는 초점》 시리즈, 〈더 큰 그랜드 캐니언〉과 최근작인 〈2017년 12월, 스튜디오에서〉와 같은 시기별 주요작을 국내 최초로 선보임

- 이번 전시가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도전을 지속하는 현대 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삶과 작품 세계를 한국의 관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함.

(전시소개 1/2)

□ 전시 소개

▸ 서울시립미술관은 영국 테이트미술관과 공동 기획으로 현존하는 동시대 예술가 중 가장 영향력 있고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작가인 데이비드 호크니의 국내 첫 대규모 개인전 《데이비드 호크니》(2019.3.22.~8.4.)를 개최한다.

▸ 데이비드 호크니(1937년생, 영국)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폭넓게 사랑을 받아온 현대미술의 거장이다. 80세 생일에 맞춰 2017년부터 1년간 영국 테이트미술관, 프랑스 퐁피두센터,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을 순회한 회고전에서 백만 명의 관객이 관람하였고, 2018년 〈예술가의 자화상(두 사람이 있는 수영장)〉이 약 1,019억(약 9,030달러)에 경매에 낙찰되며 현존하는 작가의 작품가 최고 기록을 수립한 점은 그 인기와 예술적 가치를 반증한다.

▸ 호크니는 60여 년의 작업 여정 동안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동성애, 인물, 풍경 등을 주제로 여러 매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표현 양식을 실험적이고 과감하게 시도해왔다. 다채롭게 변모해온 예술적 여정을 통해 호크니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장르인 이 시대의 예술가'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이번 기획전 《데이비드 호크니》는 일곱 개의 소주제('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반기', '로스앤젤레스', '자연주의를 향하여', '푸른 기타', '움직이는 초점', '추상', '호크니가 본 세상') 하에 작가의 대표 작품을 대거 소장하고 있는 영국 테이트미술관을 비롯하여 주요 미술관(영국문화원 소장품, 영국 왕립예술아카데미, 영국 솔츠밀, 영국 리버풀대학교 빅토리아 미술관,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 호주 국립미술관, 일본 도쿄도 현대미술관)에서 대여한 회화, 드로잉, 판화, 사진 등 133점을 선보인다.

(전시소개 2/2)

- 전시는 초기 영국 왕립예술학교 시절에 주목받은 작품부터 오늘날까지도 대중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1960~70년대 로스앤젤레스 시기의 작품과 자연주의 시기의 2인 초상화, 피카소의 입체주의와 중국 회권(두루마리 회화)에 영향을 받은 다시점 구도의 작품, 다양한 판화 기법을 실험적으로 시도한 시리즈 작품, 대규모의 풍경화 및 최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작품을 망라한다.
  호크니의 대표작 〈환영적 양식으로 그린 차(茶) 그림〉(1961), 〈더 큰 첨벙〉(1967), 〈클라크 부부와 퍼시〉(1970~1), 《움직이는 초점》 시리즈(1984~86), 〈다른 쪽〉(1990~3), 〈더 큰 그랜드 캐니언〉(1998)과 최근작인 〈2017년 12월, 스튜디오에서〉(2017)를 포함하여, 전시의 거의 모든 작품을 국내에 처음 선보인다. 이를 통해 각 시기별로 호크니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했던 다양한 예술적 도전을 목도할 수 있다.

- 호크니의 작품 이외에도 그의 포토콜라주가 소개된 1985년 『파리 보그(Paris Vogue)』, 호크니가 영국 테이트미술관에 쓴 편지, 그의 대표작을 총망라하는 대형 크기의 『데이비드 호크니: 더 큰 책』 등 여러 자료와 출판물 등을 함께 선보이고 호크니 관련 영화 세 편을 상영함으로써 작가의 작품 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한 점은 이번 전시의 특징 중 하나다.

- 호크니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작품에 대한 실험과 예술로서의 진화를 거듭하며, 가장 전통적인 회화에 동시대적 현대성을 끊임없이 부여하고 있다. 본 전시가 국내 관객들이 현대 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삶과 작품 세계를 한국의 관객들이 직접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전시 구성 [초기]

1.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반기

브래드퍼드 예술학교 학생 시절 호크니는 실물 드로잉과 외부 세계에 대한 충실한 관찰에 입각한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음산한 색과 환영적 공간을 특징으로 하는 회화와 석판화를 제작했다. 당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가 한창 각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크니는 추상과 재현적 이미지를 구분하는 경계를 흐려가면서, 도식화된 인물의 형태, 그라피티 등을 사용하여 성(性)과 사랑에 관한 주제를 전달했다.

이 시기에 호크니는 무엇이든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피카소처럼 다양한 양식과 여러 그림 제작 방식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영국왕립예술학교를 졸업한 후 성숙한 예술가로서 작품에 자신만의 특성을 부여하고, 양식상의 자유를 발전시켜나갔다.

2. 로스앤젤레스

1964년부터 호크니는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 인근에 거주하며 이 도시를 그리기 시작한다. 뜨거운 햇빛과 자유로움을 발산하는 로스앤젤레스에 완전히 매료된 호크니는 묘사에 관한 문제에 계속해서 몰두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유리의 투명성, 계속해서 움직이는 물의 특성을 포착하는 방식 등에 천착하며 기술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했던 호크니의 작품들을 소개한다.

대표 작품인 〈더 큰 첨벙〉(1967)에서 그는 단순화된 형태와 평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에 유행하던 추상회화, 그리고 회화적 장면의 인공성을 부각시키는 작품 둘레의 경계를 풍자했다. 호크니가 공들여 그린 물살은 우연성에 대한 탐구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실적으로 묘사한 배경의 낮은 건물은 미니멀리즘 미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근대적 그리드에 대한 유희적 풍자이기도 하다.

3. 자연주의를 향하여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호크니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세계에 상당히 감성적으로 반응하며 이미지를 제작했다. '자연주의를 향하여'에서는 그가 오랜 시간 관찰을 통해 느낀 빛과 그림자, 인물, 그리고 공간과 깊이를 표현하는 데 보다 집중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특히 이 시기에 그려진 2인 초상화 시리즈는 영국 테이트미술관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오랫동안 주변 인물들을 모델로 면밀히 관찰하고 다수의 습작 드로잉을 거듭한 끝에 탄생했는데, 특히 〈클라크 부부와 퍼시〉(1970~1)의 등장인물들은 거의 실물 크기로 제작되어 마치 관객이 서 있는 실제 공간에 대상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 전시 구성 [중기]

4. 푸른 기타

1973년 피카소가 사망한 이후 그의 화풍과 예술 세계가 호크니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푸른 기타》(1976~7) 시리즈에서는 피카소에 대한 호크니의 경외심과 탐구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 시기, '자연주의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던 호크니에게 피카소와의 유대감은 위안을 주었고, 양식의 엄격함에서 벗어나 세상을 새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비록 본인은 판화가가 아니며 단지 약간의 판화 작업을 일삼는 화가일 뿐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이 판화를 통해 호크니는 20세기 후반 판화사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중요 작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5. 움직이는 초점

1980년대 호크니는 작품 스타일과 매체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며 계속하여 다작을 이어간다. 사진, 연극 무대 디자인, 중국의 회권(두루마리 회화)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면서 일시적으로는 판화로 관심을 돌려 입체주의, 회화 공간,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른 실재들을 2차원 평면에 어떻게 재현하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

호크니가 '움직이는 초점'이라고 지칭하는 이 시기의 아이디어는 원근, 기억, 공간에 대한 해석이며, 이 섹션에서는 작가에게 중요한 모델들을 대상으로 그린 여러 점의 초상화, 강렬한 색으로 표현한 정물화, 새로운 공간을 제안하는 복합적인 실내 풍경 작품들을 소개한다.

6. 추상

1990년대 초, 카메라가 세상을 동질화하고 능동적으로 보는 행위를 퇴화시킨다고 결론을 내린 호크니는 세계를 묘사할 수 있는 실험적인 방식들을 계속해서 모색했다. '추상' 섹션의 작품 〈다른쪽〉(1990~3)에서 볼 수 있듯 이 시기에 호크니는 추상적 패턴과 형태가 조합된 이미지로 회귀하였다. 선명한 색감과 다양한 패턴의 면,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의 조합은 생경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새로운 공간 표현과 인상적인 색의 사용은 이후 작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여러 영역에서의 활동과 다양한 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 시기의 작품에 잘 반영되어 있다.

(전시구성 3/3)

□ 전시 구성 [현재]

7. 호크니가 본 세상

'호크니가 본 세상'에서는 21세기 전환기에 제작된 그랜드 캐니언 풍경화와 고향 요크셔로 돌아가 탄생시킨 거대 규모의 요크셔 풍경화 작품을 소개한다. 최근작인 〈2017년 12월, 스튜디오에서〉(2017)는 3,000장의 사진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어 붙여 제작한 하나의 사진 드로잉 작품으로, 지금까지의 호크니의 작업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며 최근 호크니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확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호크니 라운지**

호크니의 예술적 여정을 주제별로 풀어낸 일곱 섹션 외에도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구성한 호크니 라운지에서 그의 작품 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선보인다. 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던 호크니의 포토콜라주가 소개된 1985년 『파리 보그(Paris Vogue)』, 그의 대표작을 총망라하는 『데이비드 호크니: 더 큰 책』을 포함한 출판물, 호크니가 영국 테이트미술관에 쓴 편지, 그리고 호크니와 관련한 영화 세 편 〈중국 황제와 함께한 대운하에서의 하루, 또는 표면은 환영이지만 깊이 또한 마찬가지이다〉(1988), 〈데이비드 호크니: 점점 더 커지는 그림〉(2010), 〈데이비드 호크니 : 되찾은 시간〉(2017)을 만날 수 있다.

□ 전시연계강연

- 미술사학자 마르코 리빙스턴: 1990년대부터 오늘까지의 호크니
  - 2019.3.22.(금) 16:00,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세마홀
- 과학자 정재승: 데이비드 호크니, 뇌 과학으로 그의 작품을 읽다
  - 2019.4.10.(수) 19:00 ,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세마홀
- 시인 박준: 예술가가 보는 세계
  - 2019.5.7.(화) 19:00,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세마홀

※ 세부 연계 프로그램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임.

□ 주요작품

데이비드 호크니, 더 큰 첨벙, 1967, 캔버스에 아크릴릭, 242.5 x 243.9 cm
David Hockney, *A Bigger Splash*, 1967, Acrylic on canvas, 242.5 x 243.9 cm
© David Hockney, Collection Tate, U.K. © Tate, London 2019

〈더 큰 첨벙〉은 호크니가 버클리의 캘리포니아대학에서 강의하던 때 그린 작품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을 기반으로 한다. 호크니는 광택이 풍부하고 얇게 발리는 아크릴 물감을 캘리포니아의 햇빛을 담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이 시기부터 즐겨 쓴다. 또한 호크니는 테두리에 여백을 남기는데, 이러한 액자 형식의 여백은 관람자가 작품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화면을 평면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Tate: Purchased 1981

데이비드 호크니, 클라크 부부와 퍼시, 1970 – 1, 캔버스에 아크릴릭, 213.4 x 304.8 cm
David Hockney, *Mr. and Mrs. Clark and Percy*, 1970 – 1, Acrylic on canvas, 213.4 x 304.8 cm
© David Hockney, Collection Tate, U.K. © Tate, London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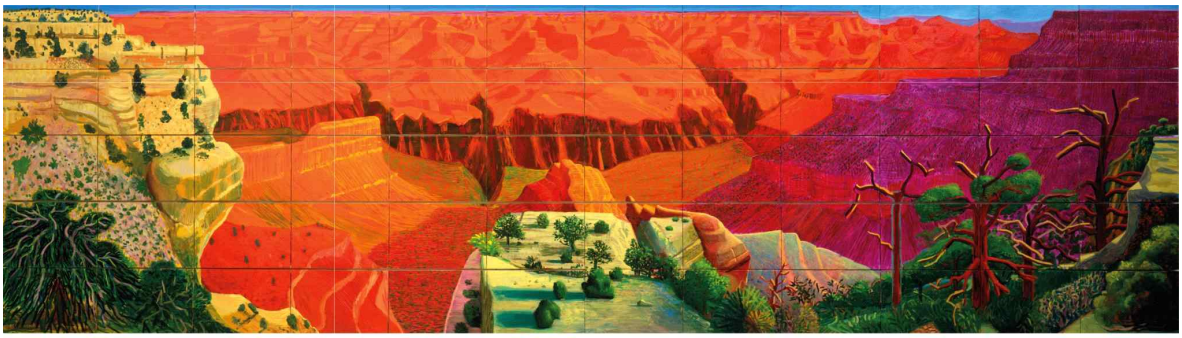
호크니는 1968년부터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주변 커플들을 대상으로 2인 초상화 시리즈를 그리기 시작한다. 〈클라크 부부와 퍼시〉의 모델은 오시 클라크와 셀리아 버트웰로 이 둘은 호크니의 절친한 친구이자 1960~70년대 런던 패션 산업을 선도한 디자이너 부부이다. 이 작품은 호크니가 1969년, 오시와 셀리아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선 이후부터 사진과 드로잉을 기반으로 구상한 2인 초상화이며, 자연광이 들어오는 실내의 묘사, 화면 밖의 관람자를 응시하고 있는 인물들의 자연주의적 묘사가 돋보인다.

Tate: Presented by the Friends of the Tate Gallery 1971

데이비드 호크니, 호텔 우물의 경관 III, 1984 – 5, 석판화 에디션 80, 123.2 x 97.8 cm
David Hockney, *Views of Hotel Well III*, 1984 – 5, Lithograph, Edition of 80, 123.2 x 97.8 cm
© David Hockney / Tyler Graphics Ltd., Photo Credit: Richard Schmidt

1984년 2월, 멕시코 개인전 방문을 위해 이동하던 중 차가 고장 나 묵게 된 아카틀란의 한 호텔 중정은 호크니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는 이곳을 주제로 시리즈를 제작한다. 1980년 포토콜라주 시기와 피카소의 회고전 이후 입체주의에 매료된 호크니는《아카틀란 호텔》시리즈를 통해 다시점과 공간 묘사 연구에 몰두했으며, 관람자가 그림 외부의 부동의 점이 되어버리는 기존의 원근법 방식을 탈피하고 역원근법을 적용해 관람자가 직접 움직이며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호텔 우물의 경관 Ⅲ〉은 아카틀란 호텔 우물의 경관을 그린 세 점의 작품 중 하나로 노란색 기둥과 중정 가운데 공간이 관람자를 향해 크게 확장된 역동적인 공간을 묘사하고 있다.

Tate: Presented by the artist 1993



데이비드 호크니, 더 큰 그랜드 캐니언, 1998, 60개의 캔버스에 유채, 207 x 744.2 cm
David Hockney, *A Bigger Grand Canyon*, 1998, Oil on 60 canvases, 207 x 744.2 cm overall
© David Hockney, Photo Credit: Richard Schmidt, Collection 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Canberra

〈더 큰 그랜드 캐니언〉은 1990년대 후반에 진행된 멀티 캔버스 회화 시리즈 중 하나이다. 호크니가 1998년 파리 전시를 위해 그린 이 거대한 회화 작품은 60개의 캔버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이가 2미터, 폭이 7미터에 달한다. 분할된 면으로 이미지를 구성하는 호크니의 작업 방식은 이전 포토콜라주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호크니가 사진으로 찍힌 이미지들의 중첩이 서로 다른 시간의 공존과 확장된 시점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이 작품에서 각 캔버스에 형성된 60개의 분열된 소멸점은 2차원적 평면에서 사용되던 일점 원근법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인간의 시각 인식 체계와 유사한 다시점 방식으로 관람자의 시선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공간에 대한 묘사, 공간 안에서의 경험, 시공간을 초월한 작가의 경험을 더욱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Canberra
Purchased with the assistance of Kerry Stokes, Carol and Tony Berg and the O'Reilly family 1999

데이비드 호크니, 와터 근처의 더 큰 나무들 또는/또는 새로운 포스트–사진 시대를 위한 야외에서 그린 회화, 2007, 50개의 캔버스에 유채, 457.2 x 1220 cm
David Hockney, *Bigger Trees near Water or/ou Peinture sur le Motif pour le Nouvel Age Post–Photographique*, 2007, Oil on 50 canvases, 457.2 x 1220 cm overall
© David Hockney, Photo Credit: Prudence Cuming Associates, Collection Tate, U.K.

〈와터 근처의 더 큰 나무들 또는 새로운 포스트-사진 시대를 위한 야외에서 그린 회화〉는 가로 12미터, 세로 4.6미터로 호크니의 작품 중 가장 큰 규모의 작품이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외에서 그린 이 작품은 50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성하는 데 6주가 걸렸다. 이 작품은 호크니가 고향인 요크셔로 잠시 돌아간 시기에 제작되었으며, 브리들링턴 서쪽 와터 근처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호크니는 이 작업을 위해 디지털 사진과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관람자들이 공간이 아닌 표면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진의 한계를 회화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했다. 호크니는 나뭇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뭇가지와 잔가지들의 풍경을 여러 패널로 분할한 대형 화면 위에 선명히 묘사함으로써 자연의 다양성과 무한성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며, 보는 이를 화면 안으로 끌어들인다.

Tate: Presented by the artist 2008

기본정보

주 최 서울시립미술관,
영국 테이트미술관
주 관 (주)시월
후 원 영국문화원
협 찬 카카오페이
전시 예매 1899 0042 | ticket.melon.com

전시담당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 이승아 큐레이터
supernova@seoul.go.kr / 02-2124-8935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전시문의 1833-8085
관람시간 화~금 오전 10시~오후 8시
토·일·공휴일 오전 10시~오후 7시
뮤지엄 나이트(매월 둘째,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10시
매주 월요일 휴관
*입장 및 티켓 발권 마감: 관람 종료 60분 전

홍보문의 김채하 학예연구사 chaeha@seoul.go.kr / 02-2124-8928
주정미 jjm@siwall.co.kr / 02-323-4502 / 1833-8085

서울시립미술관 웹하드 접속 (http://sema.webhard.co.kr)
아이디: semapress
비밀번호: sema
로그인 후 이미지 다운로드

데이비드 호크니전 관람료 안내

관 람 료

관람료

구분	일반 만 24세 초과 — 만 65세 미만	청소년 만 12세 초과 — 만 24세	어린이 만 6세 초과 — 만 12세
개인	15,000원	13,000원	10,000원
단체	13,000원	11,000원	8,000원

※ 단체 20인 이상 인솔자 1명 무료 가능

특별권 및 할인 무료 정보

특별권	8,000원	만 65세 이상 장애인 4급~6급 (경증) 미취학 아동 (만 4세 이상 ~ 만 6세)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유자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유자 의사상자 유족 서울명예시민증 소유자
특별할인	일반 가격의 2,000원 할인 (특별권 제외)		다둥이 행복카드 (카드에 등재된 가족포함)
	문화가 있는 날 현장발권 50% 할인		6시 이후 현장 발권 시 해당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카카오페이 제휴 할인	카카오 페이 결제 시 20% 할인 (1인 10매까지 구매 가능·중복할인 불가)		
무료권	무료입장	만 48개월 미만 장애인 1급~3급 (중증) (동반 1인 포함, 복지카드 제시)	국가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 본인 의사상자 본인 참전유공자 본인